



유로존 구제기금 확대 논의에도 불구하고, S&P,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시사

최 원 선임연구원

- EU(유럽연합)가 EFSF(유럽재정안정기금)를 유지함과 동시에 신설되는 영구구제기금인 ESM(유럽안정기금)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.
 - EU는 EFSF를 201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한 뒤 2012년 7월 ESM을 설립하여 대체 운용할 계획이었으나, 2개 구제기금을 동시 운영하는 것이 금융위기 차단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2개 기금 공존이 예상되고 있음.
 - 현재 EFSF 규모는 4,400억 유로이며, 2012년 신설되는 ESM의 예상 규모는 5,000억 유로임.
 - ESM의 경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금 출자비중을 높이고 EFSF에는 금지된 ECB(유럽중앙은행) 차입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 중에 있음.
 - 한편, IMF(국제통화기금)가 각국 중앙은행들로부터 2,000억 유로를 지원받아 유로존 재정위기 구제자금으로 투입하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최대 기금 규모는 1조 3,000억 유로가 될 전망이다.
 - EFSF의 경우 보증 등의 형식으로 약 6,000억 유로까지 증액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.
- 유로존 재정위기 관련 구제금융 기금 확충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신용평가사인 S&P는 12월 5일 15개 유로존 회원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함.
 - S&P는 키프로스나 그리스를 제외한 15개 유로존 회원국을 '부정적 관찰대상(Creditwatch Negative)'으로 지정하면서 향후 90일 이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.
 - 평가 이유로는 유로존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책 담당자들의 이견을 크고, 정부 및 가계 부채 수준이 높으며, 2012년 실물경제 침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힘.
- 또한, S&P는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 여부에 따라 EFSF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함.

- S&P는 신용등급이 'AAA'인 EFSF의 신용등급 전망을 '부정적 관찰대상'으로 변경하면서 EFSF 회원국 정부에 대한 신용등급 검토 결과에 따라 EFSF의 장기 신용등급을 1단계에서 2단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함.
- 또한, S&P는 12월 9일 개최되는 EU 정상회의에서 신뢰감을 회복시킬 방안이나 합의가 도출되는 지 여부에 따라 EFSF 신용등급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함.

(Financial Times, 12/6)